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박원호
EAI 패널조사연구팀
서울대학교

여기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민주당의 딜레마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당 지지층과 인물 위주의 선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안철수 원장 지지

민주통합당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자당의 후보군에 비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가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대다수(84.5%)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4.3%는 안철수 원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31.4%의 지지도를 보인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민주통합당의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당 바깥으로의 지지”는 양자대결이나 삼자대결 시나리오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의 압력

이곳에 민주통합당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더 선호하는

안철수 원장이 당외에서 존재하는 한, 현재의 당내 경선을 통해 뽑힌 후보자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단일화의 압력으로 나타나는 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58.2%가 안철수 원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5.4%가 만약 안원장이 출마한다면 야당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의 대다수는 안원장이 출마 및 후보단일화에 비판적으로 응답하였다(〈표2〉, 〈표3〉 참조).

정당의 위기, 인물 위주의 선거

원내 제 2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당선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표1] 지지정당별 대선후보 지지(%)

	김두관	문재인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	정세균	미정 없음	계
새누리당	.6	.6	84.5	1.2	6.3		6.7	100.0 [489]
민주통합당	2.5	31.4	7.4	6.2	44.3	.6	7.7	100.0 [325]
통합진보당	2.4	35.7	16.7		40.5		4.8	100.0 [32]
다른 정당	3.3	26.7	13.3		46.7		10.0	100.0 [40]
무당파	2.0	13.0	25.6	2.1	42.6	.4	14.4	100.0 [563]
전체	2.0	13.0	25.6	2.1	42.6	.4	14.4	100.0 [1449]

그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당과 정책보다는 인물과 후보자가 중요시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통합당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표4〉 참조).

전체 응답자들의 5.3%만이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보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한 반

면, 65.5%의 응답자들이 후보자의 경력이나 도덕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과 공약을 고려하는 응답자들은 16.6%였는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원장 지지자들은 이념과 공약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의 경력이나 능력을 매우 중요시(40.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정당 지지별 안원장 출마여부 입장(%)

	출마 해야	불출마 해야	모르 겠다	계
새누리당	15.0	67.0	18.0	100
민주통합당	58.2	27.7	14.2	100
통합진보당	55.8	23.3	20.9	100
다른 정당	46.7	30.0	23.3	100
무당파	48.0	31.9	20.0	100
전체	39.4	42.5	18.1	100

[표3] 정당 지지별 안원장 후보단일화 입장(%)

	단일화 해야	독자 후보	모르 겠다	계
새누리당	22.9	55.2	21.9	100
민주통합당	75.4	20.6	4.0	100
통합진보당	58.1	34.9	7.0	100
다른 정당	63.3	26.7	10.0	100
무당파	41.8	42.0	16.1	100
전체	43.9	41.1	15.0	100

[표4] 대선 지지후보별 지지이유(%)

	소속정당	능력과 경력	후보의 도덕성	이념과 공약	당선가능 성	출신지역	기타	모름/무 응답	계 [n]
3차 지지 대선 후보	김두관		38.5	26.9	23.1	3.8	7.7		100.0 [26]
	문재인	8.5	21.9	42.8	20.4	3.5	2.5		100.0 [201]
	박근혜	8.1	40.4	23.5	13.3	7.8	5.7	.2	100.0 [592]
	손학규	5.4	67.6	16.2	10.8				100.0 [37]
	안철수	.4	25.6	40.8	19.5	8.5	4.9	.2	100.0 [446]
	정세균		50.0	50.0					100.0 [4]
전체	5.3	33.2	32.3	16.6	7.0	.5	4.8	.2	100.0 [1306]

EAI 여론분석센터 출판물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는 2012년 8월부터 주요 테마별 여론분석결과를 2-4페이지 분량으로 압축,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메모>시리즈를 발간한다. 주제별 심층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리뷰>(5-10페이지), 특정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EAI 여론브리핑>(10페이지 이상)와 함께 3종의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된다. 또한 주요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은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를 발간한다.

2012 EAI 오피니언메모(Opinion MEMO) 시리즈

- 제1호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복잡성” 정원철 (2012. 8. 24)
- 제2호 “정당 지지의 하락과 무당파 증가: 야당 지지이탈과 안철수 기대감” 강원택 (2012. 9. 4)
- 제3호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임성학 (2012. 9. 4)
- 제4호 “민주통합당의 딜레마: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 지지자와 인물위주 선거” 박원호 (2012. 9. 4)
- 제5호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선 안철수” 김준석 (2012. 9. 4)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09호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정한울 (2012. 2. 6)
- 110호 “2012 총선 · 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근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31)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8월 20 - 23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50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2.6\%$
패널유지율	72.5% (1차 조사 2,000명 기준)